한국 김을 먹는 영국 초등학생들의 모습/출처=유튜브 채널 '영국남자' 캡쳐17일 주식시장에서 음식료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졌다. 식품 기업들이 올해 1분기 나란히 '어닝 서프라이즈'(깜짝 실적)를 발표한 영향이다. 증권가에서는 김 등 K푸드의 수출 증가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고, 식품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.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식품 제조 전문기업 CJ씨푸드는 전날보다 395원(11%) 오른 3985원에 거래를 마무리했다. 장 초반 4600원까지 뛰며 상한가에 근접했다. CJ씨푸드는 이달 들어서만 44.1% 올랐다. 사조씨푸드도 전날보다 12.3% 오른 4790원을 기록했다. 사조대림(1.82%), 동원수산(4.62%), 사조산업(1.33%) 등도 나란히 강세를 보였다. 해당 기업들 역시 김, 참치 등 수산 식품 생산 및 유통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.전날 발표한 호실적의 영향으로 풀이된다. CJ씨푸드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525억원으로 전년동기(351억원) 대비 49% 증가했다.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3억원으로 10161% 늘어났다. 당기순이익은 14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.주요 제품인 김의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. CJ씨푸드의 분기 보고에서 따르면, 올해 1분기 김 사업 매출액은 192억원을 기록했다. 2023년 연간 매출액은 243억원이었는데, 1개 분기 만에 지난해 전체 매출의 80%가량을 채운 셈이다.실제로 국내 김 사업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.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김은 지난해 수출액 1조원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. 한국 김은 12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세계 시장 점유율은 70%에 달한다. 해수부는 '2027년까지 10억달러 수출'을 목표로 세웠다.  
  
  
  
cj씨푸드 주가 추이/그래픽=조수아연일 고공행진 하는 김값도 김 생산 업체의 주가에 상방 압력을 더하고 있다. 통계청 국가통계포털(KOSIS)에 따르면 지난달 김 물가 지수는 119.45(2020=100)로 전년동기 대비 10% 상승했다.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(2.9%)의 약 3.4배다.김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"CJ씨푸드가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공시하면서 사조씨푸드, 사조대림, 동원수산 등 수산 테마의 종목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"며 "지난해 일본 오염수 방류라는 악재의 기저효과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"고 설명했다.이날 주식시장에서는 1분기 호실적을 낸 식품 기업들의 급등이 이어졌다. CJ제일제당은 1.37% 상승했다. 대상(5.4%), 풀무원(7.3%), 롯데웰푸드(2.9%), 동원F&B(6.3%), 오뚜기(4.2%), 삼양식품(29.99%) 등도 나란히 강세였다.